

안녕하세요 잇여러분 ㅎㅎ

성민장

등
장
쓰

오랜만에 포스팅 다운 포스팅을 하게되었는데용
바로
무엇이나

핫



블로그 기자단...!?

넵

학교에서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한다길래
넵다 신청을 했었드랬죠 ㅋㅋ

한달 전 쯤이던가..

사실 서포터즈 활동은 경험이 없어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는데
일단은 신청했습니다.. ㅋ 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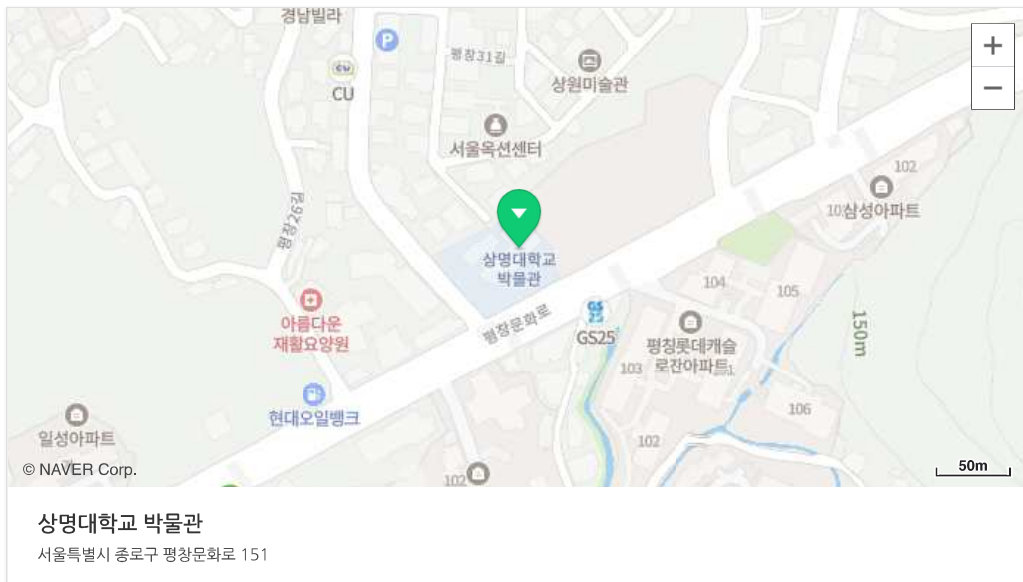
졸업하기전에 뭔가 활동 같은 걸 좀 해보고 가는게 낫겠다 싶었죠 ㅋ ㅋ
평소에 넘 안해서 유종의 미를 좀 거두자는 의미도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포트하는 곳은
바로
~
넵
울학교
상명대학교의 박물관인데용

사실 박물관이 있는지도 몰라써용 ㅠㅠㅠ(미안해 박물관아..)

먼저
상명대학교 박물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버스로 4정거장 정도.. 거리
붙어있지는 않아서 모르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평창동 기숙사있는 곳에 있습니다

처음가서
위촉장까지 겠도..

오..뭔가 부담되는데
일단

우리학교 박물관도 둘러보는 시간도 갖고 재미있었습니다 ㅋㅋ

박물관에 관한 포스팅은 따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제 다가올 단오와 관련된 행사인데용

한국대학박물관협회와 상명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유학생 문화 나눔행사〉입니다!



상/로/는/북/미/아 제/맛/이다

2019 박물관과 함께 하는 유학생 문화 나눔

『단오맞이 전통체험』

재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우리나라 세시풍속 중 하나인
단오맞이 체험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행사 1. 단오부채 만들기 ◆



◆ 행사 2. 수리취떡과 메실차 맛보기 ◆



|일시| 2019. 5. 29(수), 11:00 ~ 16:30

|장소| 학술정보관과 밀레니엄관 사이

|주최 및 주관|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상명대학교 박물관

따란~~~

단오를 맞아 진행되는 우리 행사는

5.29일

상명대학교 도서관과 밀레니엄관 사이에서 진행된다고 해요!

사실 17년도부터 진행되어온 유우우~~~서깊은 행사인 거습니다!
작년에는 중국의 전지공예와 베트남의 유우+우우+우명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코너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문양을 새긴 머그컵 꾸미기 등의 체험으로 행사가
열렸었죵

11시 부터 오후 4시까지니 학교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지나가면서
쑈

한 번 둘러보실 시간이 될 거같아용
지난 행사도 아주아주 아주 성황리에 마쳤다는 사실!

우리학교도 유학생들이 참 많이 계시죵

교양수업 뿐만 아니라 전공 수업에서도 종종 같은 팀으로 한 학기를 보내게 되지만
특히 친해지거나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ㅠㅠ

참..대학가면 외국인 친구들 많이 새귀고 그럴 줄 알았는땡.....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고 아무래도 수업,,과제,,이런거만 하다보면 친해질 일이 잘 없죵

이번 2019 박물관과 함께하는 유학생 문화나눔 행사를 통해서
외국인 학생 여러분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용 ㅋㅋㅋ



울학생 여러분도 !

시간내셔서 한 번 들르시면 좋을거예용 여러가지 쟈는 체험들
그리고 울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챙겨가실 수 있는 기념품도 준비되어있는

완
죵
혜자 행사
인거죵

긏긏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용

일단 단오맞이 전통체험의 테마이니까
먼저 단오를 알아보도록할까요.araboza

단오.....우리가 흔히 아는 단오는 무엇일까용?



저는 웬지 이거? ㅋㅋㅋ

뭔가 창포물에 머리감고? 씨름하고? 웬지 그런거 하는거라고 초등학교땠가 배웠던 기억이 나네용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여러가지 절기 중에서도 단오는 꽤 중요한 날입니다

음력으로 5월 5일인 단오는 우리말로 수릿날이라고도 하는데용

수리?

수리는 우리말로 신(神)을 의미합니당
한마디로하면, 신을 모시는 날이라는 것!

그런데 왜 하필 5월 5일일까용?
5월 5일은 특히 태양의 기운인 양기(陽氣)가 가장 센 날로
이날 만큼은 농사를 잠시 쉬면서

여러가지 놀이 문화를 즐기며 이웃분들과 어울려 노는 날이었다는 거시종



넵

놀자이거에용!!! ㅋㅋㅋ

그래서 씨름도 하고 그네도 타고 하는거였군용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철이 시작되니까요
좀 한 박자 쉬고 들어가자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당

행사의 주요 체험은 먼저

1. 단오 부채만들기!!!!!!!!!!!!!!!!!!!!!!

아 이제 더워질거예요.....
더위하면
여러분들
뭐가필요하죵



상명대학교 박물관 제공

부..부채요!!

요새 손풍기들고 다니시는 분들두 많은데 집에서는 부채를 휘휘 하는 것두
쉬이원하죵

특히 우리학교 행사의 기념으로 만든 부채라면
친구들과 한개씩 나눠가지면서 소중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민장도 초등학교때 미술시간에 만들었던
한지공예 부채..

아직도 집에 있더라는 ㅋㅋㅋ

1



물로 칠한다.

2



손으로 찢는다.

3



풀칠한다.

4



손으로 눌러 붙인다.

우리가 만들 부채에는 학생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글귀라던가
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의 예쁜 이미지로 데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런것들을 말이종

인쇄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용

밥먹고 부채질 할 겸 잠깐 둘러서 부채 만들기 가능?
가능..!

옛날에는 이렇게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부채를 만들어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용

역시 정이 있는 우리 민족....bb

울학생 여러분들두 부채하나 만들어서 집에 계시는 가족분들께
선물드려보는건 어떨까요?
너도부치고 나도부치고 우리가족 부채는

2019 상명대학교 박물관이 함께하는
<유학생 문화나눔 행사>에서 만들어보야용

행사의 두 번째 코너!

성민장이 젤루 기대가 되는 코너인데용

무엇이냐...



?

수리취떡이에요.

크으....참기름 번들거리는것보소...

학생여러분 떡은 좀 생소하죵ㅠㅠ
울학교 앞에도 떡집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평소엔
떡을 찾아가서 먹을 기회가 잘 없죵...

원래 예로부터 떡은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먹는 것이기도 했어용

특히

이번에 준비된 수리취떡은
단오 때 먹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맵쌀가루에 수리취라는 식물의 어린 잎을 넣어 반죽하는 것이 특징인데용
반죽 위에는 수레바퀴 모양의 무늬를 찍어내서 더욱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더합니당



상명대학교 박물관의 소장품이에용~~수리취 떡의 무늬를 만드는 떡살입니당

요로코롬 생긴 떡살로

떡 위에 무늬를 새기는 것이죵ㅎㅎ

날이 더워지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던 옛날에는

5월부터 나쁜 기운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답니당

그래서 5월의 관문인 단오날에는 향이 강한 음식을 지어서 액운을 물리치고자 했던

것이죵

수리취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작용이 풍부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쳐서는 않되는

아주아주

중요한

떡인거죵

헛헛

이게원떡...

게다가 이거이거...

꺾

가야겠어요

무려

평소 접하기 힘든 수리취떡을

강원도 정선 떡집에서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정...선...
와 이 정성....

울학교 요새님 짱이래요ㅠㅠ

그리고 여름에 시원하게 마시는 매실음료도 함께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니당

연강으로 바쁜 학생들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매실음료 한 잔 시원하게 (해장) 들이키고 가셔용~~~~



(내 기필코 저 강원도에서 온 수리취떡 만큼은 먹으러 갈 것이야..)

성민장도 쓰면서도 기대가되는데용
다음주에 꼭 가서 부채두 받고
외국인 친구들두 만나보구

징자 착한 행사!!!!!!

그럼 여러분
담주에 도서관 앞에서 모두모두 보는거시에용~~!!!



자
~
우리
오늘 알아본 소식은,

한국대학박물관협회와 상명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유학생 문화 나눔행사〉였어용

이제 곧 기말고사도 준비해야하고
날도 더워지는데 헉헉..;

바쁘고 지친 율학생(교직원도 가능..!)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부채도 만들고 떡도 주고 음료수도 주는
차간 행사가

다음주
수요일!

도서관 앞에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꼭
오실거죵?? ㅎㅎㅎ

그럼 우리 거기서 보는걸루
ㅋㅋㅋ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박물관
MUSEUM

상명대학교 제8기 블로그기자단